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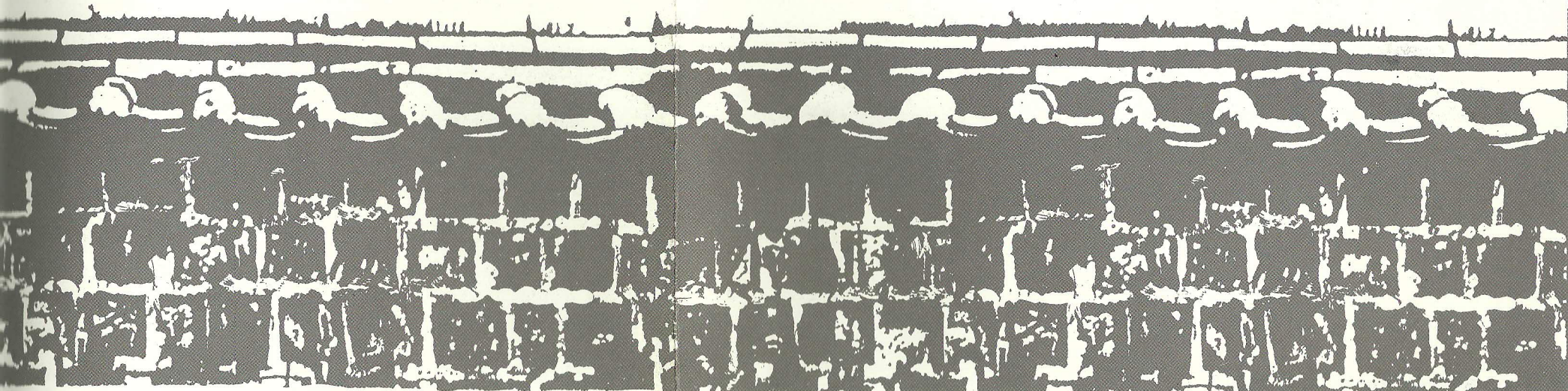
달아
가다



정월대보름자신밝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쫄쫄 쫄쫄 쫄쫄

총지휘 / 김진홍(수석안무자)
서속자(안무자도자)
안무 / 수석단원 공동안무



94. 2. 24 (목) 18:00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

PUSAN CULTURAL CENTER OUT DOOR STAGE



19:00 문화회관대강당

|”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 리 민족은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소위 제정일치(Theocracy) 사회에서 싹트는 전통으로 지금도 동족을 확인하는 가장 큰 기능의 하나로 공동체 의식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의식의 형태를 띤 춤판은 잠신들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이 없는 신선한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적 단합생활의 현장이기도 하다.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 을 한해의 평안과 행운을 기원하며 모든 액을 물리치는 지신풀이를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신앙에 바탕을, 두어 부산시 지방무형문화제 제4호로 지정된 「동래 지신 밝기」의 예로 창작성을 가미하여 문굿, 길놀이, 성주풀이, 축원, 액풀이, 깃발춤, 주색잡기

그리고

“가네 가네 달맞이 가네
 높은산으로 달맞이 가네
 가~세 가~세 가~세 달맞이 가네
 살구 이구 다리를 밟아 현미만리 걸어 정월이라
 대우름날 1월이 종을다구 가네 가네 달맞이 가네
 높은산으로 달맞이 가네
 가~세 가~세 가~세 달맞이 가네

로 시작되는 강강술래가 파노라마 형식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물과 춤의 어울림(장고춤, 북춤, 소고춤)으로 끝난다.